

여야 개원협상 막판 새누리 버티기

불법사찰·내곡동 사저 등의견 접근 불구 박근혜측 이해관계 반영 '합의 번복' 돌변

19대 국회 가동을 위한 여야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새누리당의 막판 버티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따르면 여야는 실무 협상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하고 언론사 파업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이 내곡동 사저 문제를 특검 선에서 양보하고 언론사 파업 문제도 상임위 청문회 수준으로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로 하되, 기존 6개 상임위원장에 보건복지위원장과 기타 다른 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

해진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돌려 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개원 협상의 걸림돌로 만들지 않기 위해 문방위원장·정무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을 포기하고 보건복지위원장과 나머지 한 자리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는 "오늘 중으로 국회 개원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이 같은 잠정 합의사항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합의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 내 일부 인사가 "민간인 사찰 사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해선 국조가 아닌 특검을 도입하고, 방송사 파업 문제는 개원 조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방위 차원의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 실시 문제와 관련 '합의한 바 없다'며 "국회에서 모든 논의가 가능하지만 개원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간인 사찰과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두 개 모두 수사 완결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원내수석 간에 사실상 완전 합의한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이 영등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를 개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잠정 합의 번복'엔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의정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문방위는 대통령선거 또 정수장학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무위는 저축은행과 관련해 박지만, 서향희와 관계가 있다. 국토위는 청와대에서 4대강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3개를 포기하고 윤리위·국방위·외통위 중에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소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뷰-김재무 전남도의회 하반기 의장

“화합·소통 의회...집행부 견제·감시 철저”

의원보좌관제 적극 도입 전남발전 의회구조 조성



전남도의회 김재무(민주·광양3) 신임 의장은 27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선거에서 '새롭고 강한 의회! 화합과 소통의 의회'를 선거구호로 내걸었던 신임 김 의장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3선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집행부를 더욱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위원제도 강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확대 ▲정책 감사시스템 도입 ▲의회 내 공약사항 점검 시스템 정착 등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 자신이 내건 공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기는 도정질문과 행정감사가 활발했는데 당이 다른 의원과의 화합과 집행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는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하반기에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독립 등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의회가 아니라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문재인 “중복세력 정치권서 배제돼야” 손학규 정책행보...준비된 대통령 부각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중복주의 논란과 관련, "중복세력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배제돼야 마땅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마구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회의장은 물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저는 이제 막 시작했고 우리는 후보들이 분산돼 있다"

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그분 지지를 넘어서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분의 역사인식이 너무나 퇴행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파탄 났다는 것이 드러난 시기에도 여전히 '줄푸세'를 소신으로 주장하는데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책일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 가능성과 후보단일화 경선시 승리 가능성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관계에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면서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손 상임고문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1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민생 행보를 이어온 손 고문의 첫 정책토론회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일 자리를 나눠 노동자들이 가족과 저녁을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의 '저녁이 있는 삶'은 수도권 중산·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한 손 고문의 핵심공약이다.

그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단계적

김종식 서구청장 민주 복당 재추진

총선때 박근혜 밀착동행...논란 예고

지난 4·11 총선거간 중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밀착 동행해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종식 광주시 서구청장이 최근 민주통합당 복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2010년 10월 26일 서구 재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못 받아 탈당한 김 청장이 조만간 복당 원서를 제출할 계획

이라는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2월 4·11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복당 원서를 제출했으나 불허당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서구 박혜자 의원을 만나 복당과 관련, 협조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7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 중 1명이다. 당원자격심사위원은 탈당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 복당 여부를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중앙당으로 넘기게 돼 있으며, 중앙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의원 측도 김 청장의 복당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지역 지지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서구만 무소속이다. 복당과 관련, 김 청장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3월 30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밀착 동행해 총선 후보 지지발원한 데 이어 서구의회 막판 발원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종교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유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분
▶4명 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입찰활동비 / 교재비 등 별도 회비없음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공통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